

‘녹조라떼’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 허가 눈앞

광주 서구청 ‘5곳에 8개 관정 뚫어 하루 895t’ 25일 결성 주민협의체 2차례 만남서도 의견 못 모아... 26일 3차 회의

매년 녹조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에 대한 수질개선안으로 당초 ‘풍암호수 수질개선 TF(이하 TF)’가 제시한 지하수 개발·이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청은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 사업자 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로부터 풍암호수 일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받아 최종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11월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를 내고 풍암호수 일대 5개 지역에 8개 관정을 뚫어 하루 895t씩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9년 TF가 제시한 수질개선안 중 하나로, 당시 TF는 하루 1000t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맑은 물을 공급해 풍암호수 수질을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서구청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심사 의뢰한 결과 지난 11일 ‘적정’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심사 결과 반경 500m 이내 지하수 고갈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풍암호수 지하에 하루 2000여t씩 새로운 지하수가 고이며, 그 중

67%인 1300여t의 지하수를 매일 퍼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 결과로 일각에서 제기한 하루 1000t에 달하는 지하수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지, 지하수가 고갈돼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등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서구청은 설명했다.

서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오는 25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 방침이다. 허가 이후 사업자가 미리 뚫어놓은 8개 관정에 펌프만 설치하면 바로 풍암호수에 지하수 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에서 기존에 광주시가 약속했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미처 적용될 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주민협의체를 출범했지만, 내부 정리가 되지 않아 아직 주민 의견을 한 차례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는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등 중앙공원 1지구 인근 7개 동 주민들과 지방의원 등 4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7일, 지난 12월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회장단 구성, 의사 결정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 전경.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수질개선안으로 하루 895t 지하수를 끌어올려 맑은 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N명주 기자 mjna@

방식 등 기초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협의체는 오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한 뒤 본격적으로 주민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점은 풍암호수 매립 여부이며, 풍암호수에 유입수가 절실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며 “지하수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사업자 측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측이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허가 신청을 낸데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로 그대로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으로는 자연유하(流下)방식, 기계 정화식, 약품포설식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TF는 도심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자연유하방식을 최적으로 꼽으며 풍암호수 평균 수심을 2.8m에서 1.5m로 줄이고 매일 지하수 1000t과 자연순환방식으로 끌어올린 물 2900t 등을 유입수로 공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연계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오는 3~4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GIST 신임 총장 선임 돌입

김기선 총장 사표 제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갈등을 겪어온 총장 사퇴 문제를 매듭짓고 신임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GIST측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기선 총장이 GIST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동안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며 노조로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받았다.

이사회도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자,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 김 총은 이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이 임기 만료 전인 2월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직권 강제 조정을 냈고, 양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소송 종결을 통해 김기선 총장 임기가 2월 24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GIST는 2월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GIST 이사회는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총장 초빙 공고를 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일제 강제동원 토론회서 의원들 태도 논란

야당 대표 인사말 후 상당수 퇴장 현대전화로 스포츠 중계 시청도 방청객 “정치수단으로만 이용”

일제 강제동원 토론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외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 직후 참석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떠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비례) 의원은 스포츠 중계 영상 시청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8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단체대화방에는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남대 1학년생이라고 밝힌 안종원(23)씨가 토론회 당시 찍은 사진·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다.

김홍걸 의원 자리 뒤에 있었다는 안씨가 올린 글에는 “토론회 내내 김홍걸 의원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ESPN(스포츠 전문 채널)의 풋볼 점수를 확인하는 등 토론회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씨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고 했다.

안씨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모임에 후원까지 하고 있다. 마침 서울에 있는데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해결책을 듣고 싶어 현장을 찾았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해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마련한 긴급토론회조차 형식적인 토론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씨는 “김 의원은 토론 참석자에게 주어진 자료를 한번도 보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발표가 이뤄지는 50분 동안 공과금을 확인하고, 스포츠 라이브 방송을 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안씨가 올린 영상에는 김 의원이 이국인 시민모임 이사장이 발언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모두 불량했다는 것이 안씨의 이야기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처음에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태블릿으로 행사 기념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살펴봤고, 다른 의원은 피해자인 할머니의 발언을 제지해놓고도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 시시하러 가기 바빴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홍걸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외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모습. <안충원씨 제공>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전화·문자메시지 등이 수시로 들어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잠깐 해당 영상이 스마트폰에 뺏을 뿐”이라면서 “당일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억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반영해야”

전국 시도교육감, 이주호 장관에 의견 전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준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16명의 시도교육감은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등 민주화 과정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5·18을 비롯한 민주화 과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편찬 준거 반영에 공

동 대응해달라고 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개정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도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교육감들의 요청에 반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또 교육청별 지역 특성에 맞는 민주·인권·평화 교육 관련 전국화 사업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시, 보육 대체교사 고용 보장 방안 마련하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18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광주시의 보육 대체교사 신규 채용 공고는 설 명절을 앞둔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는 기간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

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강기정 시장이 비정규직 돌려막기가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고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결판 판매중

이방인

이 기 원 이 쓴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방인

이기원이 쓴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